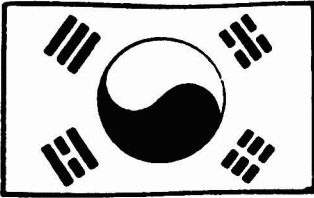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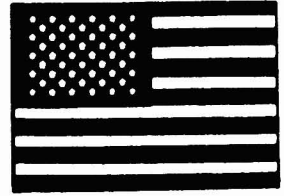


Published by the Seattle-Washington Korean Association



SEATTLE •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GREENWOOD P.O. BOX 30065
SEATTLE, WA 98103-0065
(206) 362-4500
KWANGNAM YOON · Publisher
Soon Kwon Lee · Ed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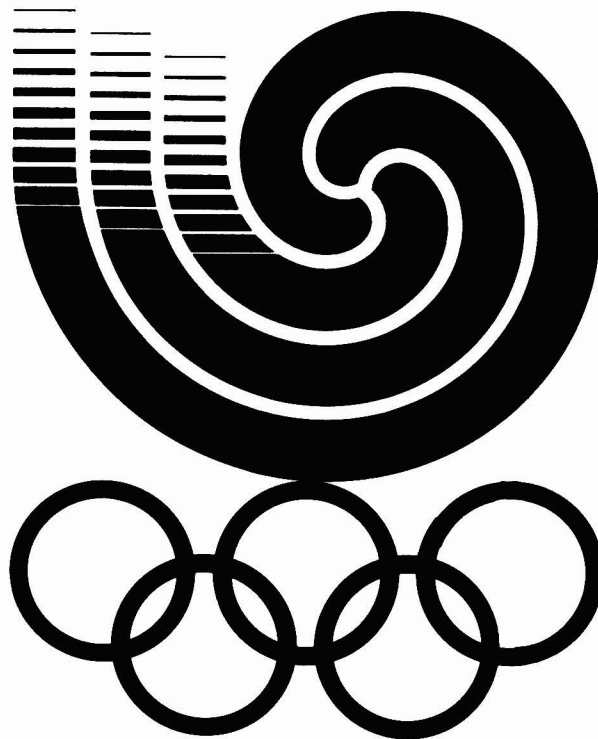


한인회보

1987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11



SEOUL 1988

최신시설과 다양한 아이디어감각 세련된 디자인과 완벽한 서비스



장미원 꽃집
Northgate Rose Garden



UNIVERSITY ROSE GARDEN(UW 대학가)의 사업확장으로 NORTHGATE WAY 에 NORTHGATE ROSE GARDEN 을 개업하게 되었음을 지면을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꽃꽂이 경력 25년과 여러대학에 꽃꽂이 강의를 하였고 현재 University of Washington 에서 Flower Design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오 NUHSE 드림

출산·생일 입학·졸업 약혼·결혼
장례식 개업·각종 행사꽃



꽃을 사용한 창작예술품
꽃의 향기와 조형미를...
기쁘게 보내고 받아서 즐거운 꽃선물
꽃과 관엽식물이 이루는 시공간의 분위기를
여러분의 생활을 운택하게 하여줍니다.

생화·조화·관엽식물
타주 및 한국꽃 배달·선물용품

※각종 꽃은 캘리포니아 원예원에서 직송하므로 좋은꽃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NORTHGATE ROSE GARDEN

(Northgate Square at Meridian)
Evergreen Washelli 강의사와 Northwest Hospital 건너편
2100 N Northgate Way #E Seattle, WA 98133

B(206) 363- 0229 R(206) 937- 3711

UNIVERSITY ROSE GARDEN(UW 대학가)

5200 University Way NE Seattle, WA 98105

B(206) 527- 3227 R(206) 937- 3711

영업시간	
Mon-Wed	9:00-6:00
Thu-Fri	9:00-8:00
Sat	10:00-6:00
Sun	Closed

※개업일에 오시는분을 위하여 꽃선물이 있습니다.

목 차

- 권두언(윤광남회장)
- 한국의 날 선포(Gov. Booth Gordner)
(Mayor Charles Royer)
- 정기총회안내 및 선거요령
- 한인회 소식
- 산천은 예나 다름없는데 (칼럼니스트 정병국·
축우회 회장)
- 소양강변의 교훈(황동규·배구협회장)
- 상황윤리(박건홍·K.P. 번역원)
- 도로규칙(심영식·주 아시안 변호사회 회장)
- 정기에금(최한준·한인회 청년부장)
- 초보자를 위한 사진상식(문희동)
- 경기승리 기쁨(구자경목사·중앙장로교회)
- Soup, Soap, Salvation(박혁락사관·타코마 구세군교회
부목사)
- 재무보고



“우리의 집” 건설을...

윤광남

<시애틀 한인회장>



세월은 유수같다더니 벌써 가을이 왔고 또 한인회장을 뽑는 선관위를 구성한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 벌써 내 임기가 끝나가는 기분이 들면서 초조해지는것은 아직도 못다한 일들이 많은 때문일까?

무엇을 결단했고 교민 사회 전체를 위해선 무엇을 했는가?

한인회가 20살의 성년기에 접어들었고 이제 우리 교민사회도 어른이 되었다. 자신의 행위에 모든 책임을 질 줄 아는 성년이 됐다. 교민사회 전체가 조그마한 일에도 흥분하고 또는 위축되는 편협한 마음에서 벗어나 언제나 의연하게 어려움에 대처하는 의젓함을 가질때가 되지 않았는가?

소수민족이라는 피해망상증을 버리고 소심함에서 벗어나 이 사회의 주류와도 의젓하게 대화할수 있는 자신을 갖자. 한인 인구 5만, 이제 우리도 무언가 할수있지 않겠는가? 한인회를 통해 우리의 힘을 보여줄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

제 우리 모두가 무언가 하나라도 이뤄보는 노력을 펴자.

지금 우리에게엔 우리 모두의 힘과 땀을 모아 시급히 해결해야할 일들이 많다. 자질구레한 일들에 우리들의 에너지를 쏟을때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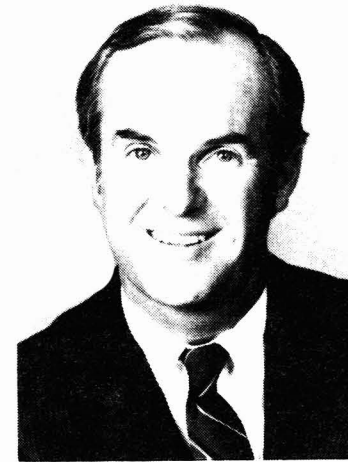
우리의 말과 글과 민족열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심어줄 조그마한 학교가 있어야 하겠고 이민초기 교포들의 적응을 도와줄 정보센터가 있어야 하겠고 가정문제, 자녀문제, 정신문제 등으로 길거리를 방황하는 불우교포와 가정을 따뜻하게 보살펴줄 「우리의 집」이 필요할때가 되었다.

재작년에는 한인회가 2번씩이나 이사를 하면서 아직도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것은 우리 5만 교포 전체, 아니 개개인이 어떻게 이야기할수 있겠는가?

수많은 단체와 기관이 저마다 뜻있는 사업들을 한다고 주장한다해도 갑자기 곤경에 빠졌을때 어디로 가서 도움을 받

을지몰 모르는게 현실이라면 어딘가 잘못되어 있고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서로서로의 마음을 열고 일의 우선순위를 갖자.

진정으로 교민사회가 필요로하는게 무엇인가를 찾고 그의 구현을 위해서 각 기관단체가 힘을 모아 우리가 필요로하는 「우리의 집」을 갖자. 얼굴이 앞장서는 단체가 아니라 봉사하는 마음이 앞장서는 단체,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교민들이 아니라 참여하고 봉사하면서 비판하는 교민, 잇슈가 좋으면 그 단체장이 누구이든간에 밀어주고 격려하는 교민, 이런 단체와 기관, 그리고 교민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한인센터를 만들자. 그렇게 함으로서 노인회도, 학생회도, 한글학교도, 한인회도 한지붕아래서 오손도손 손을 잡고 살면서 우리의 후세들에게 떳떳하게 무엇인가를 남겨주고 이야기해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The State of Washington



Proclamation

WHEREAS, Koreans and Washingtonians have shared more than 100 years of common dedication to the principles of peace and freedom and to the ideals of democracy; and

WHEREAS, the bonds of friendships between the people of Korea and Washington state continue to grow and flourish; and

WHEREAS, the cultural, educational and commercial benefits that accrue to both Korea and Washington as a result of their friendship are significant and lasting;

WHEREAS, the citizens of this state support and applaud the magnificent progress Korea has made in preparation for the 1988 Summer Olympic Games which will showcase the achievements of the Korean people to the world community; and

NOW, THEREFORE, I, Booth Gardner, Governor of the State of Washington, do hereby proclaim August 15, 1987, as

KOREA DAY

in the State of Washington, and I urge all citizens to join me in celebrating Korea's independence day.



Signed, this 15th day of July, 1987.

Booth Gardner

Governor Booth Gardner



당선인사

88년도 씨애틀 워싱턴주
한인회장 최주찬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홍수 총영사님과 선배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쉬움과 서운함속에 분주했던 1987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해를 보내면서 교민가정 모두가 다복하고 충실한 한해를 보내셨습니까? 작년도 윤회장님이 치열한 선거전에서 당선된것이 었 그제 같은데 어언 1년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채 밝기도전에 88년도 한인회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때문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다른해에 비해 할일이 많은 88년도 회장단의 책임자로서 자랑과 긍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조국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여러방면에서 민주화로 향하고 있으며, 특히 88 올림픽을 앞두고 국민모두가 흥분과 프라이드(pride)를 가지고 세계만방에 코리아(Korea)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보조를 맞추어 우리 씨애틀한인회도 다른해와는 달리 한걸음 크게 내딛고 무엇인가 교민들에게 내보일수 있는 큰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새해 한인회 임원진은 참신하고도 박력있는 인사들로 구성하여 우리 회장단을 써포트(support)하도록 할것입니다.

특별히 회장인 저 자신은 명예에만 급급하지 않고 우리 교민의 공복으로서 좀더 한국을 돌보이게하고 마이너리티(minority)로서 겪는 여러가지 억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전심전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민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하는 한인회로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래와 같은 실천공약을 내걸고 1년간 일할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1)한인회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2월이면 현 학교건물에서 나가야하므로 속히 우리 자체회관이 있어야겠습니다.

2)노인회 통합 경노잔치 및 장수표창 실시.

3)미서북부 종합체육대회 개최 : 88 올림픽 해를 맞이하여 8.15(한국의 날)기념 법교포 체육대회 실시.

4)88 한인록(주소록) 발간(품위있고 값지게).

5)씨애틀 한인 88 올림픽 퍼레이드 개최(시장과 합의하에).

6)한인회보를 4회 계간으로 발간; 품위있는 잡지식으로 전교민이 참여토록)

7)한인회 상주직원을 두고 상담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공약은 무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 실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외람된 말씀이나 건축기금을 20년간 모금한것이 2만여불에 불과하다니 창피한 노릇입니다. 교민들이 돈이 없어서 안낸것이 아니고 회장단 자신들부터 실천하지 않았기때문에 교민들도 호응을 하지 않은것입니다.

그나마도 작년도의 치열한 선거전으로 윤회장과 제가 모은돈이 약 2만불이니, 지금까지 20년간 모금한돈은 \$40,000여불입니다.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도 이제 21살의 성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장가보낼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셋방살이에서 면해야겠습니다. 더 부살이에서 이제 면하고 제금나야겠습니다. 88년도는 한인회의 장가밀친을 마련하는데 도와주시고 부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이지역에서 우리 한국 교민들도 머리를 들고 모든권리를 찾을때가 왔습니다. 이제 올림픽만 잘 끝내면 전세계에 코리아를 외칠수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회장직을 맡은 제자신은 긍지와 용기를 가지고 맡은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협조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으며, 스스로 찾는 한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지역의 어느 교민보다도 땀땀하고 의기양양한 우리동포들이 되도록 뒷받침할것을 약속하며 이에 당선인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총회 안내 및 선거요령

1987년 한인회 선거세칙

●유권자 자격

한인회 회칙 제15조 제2항(나)에 준하며, 자격은 만18세이상의 한인회 회원으로 본회가 정한 회비 또는 회비이상의 액수를 선거일 2일전에 납부한 정회원으로 한다. (단 우편으로 회비를 납부할시는 한인회 사무실에 11월 13일까지 도착하여야함)

●피선거권자 자격

한인회 회칙 제21조에 준하며, 본회의 피선거권자 자격은 정회원으로 최소 2년이상 본회의 의무를 충성한자에 한한다. 단 선거관리위원은 피선거권을 갖지못한다.

선거일자 : 1987년 11월 14일(토요일)

10:00(오전)~5:00(오후)

입후보자 지원서류 및 등록금

●구비서류 : 사진 1매, 약력, 공약서

●등록금 : 회장단 \$5,000.00

이사 3명 각각 \$500.00

●등록일 : 1987년 10월 14일 오후 7시까지

●등록장소 : 한인회관(125th & Greenwood)

●입후보자 지원서류를 보낼곳 : 한인회 사무실

※접수된 등록금은 반환치 않으며 Casher's Check로 등록금을 송부할것.

●연락처 : 위원장 오준걸(455-9571)

총무위원 조 영(623-3112)

위 원 James유(527-7428)

위 원 민학수(782-0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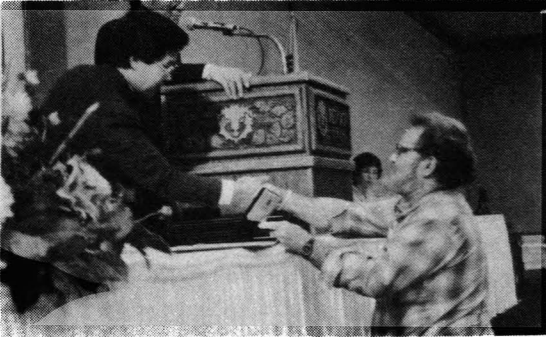
위 원 류창명(362-2692)

※입후보자 명단 및 선거절차는 10월 25일경에 발표함.

한인소식

●8.15 한국의 밤

한국의 밤이 8월15일 오후6시 Sea-Tac Red Lion 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주총무 처장관 Ralph Monroe, 시애틀 시장 Charles Royer 의 축사가 있었으며 450여명의 축하객이 참석하였다. LA에서 온 민속무용단과 UW Singer's Club(지휘 박창훈)의 공연은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또한 윤광남 한인회장은 Seattle Public Library 에 도서를 기증하였으며, 특히 한국 참전용사중 현재 Seattle Veteran's Hospital 에 있는 참전용사를 초청하여 참전기념패를 증정하였다.



●신임 한인회장 최주찬후보 무투표 당선

최주찬 신임회장
약력 : 고려대학교 졸업
워싱턴주 축구협회 회장(현)

●청소년 하기 Camp

한인회 청년부(부장 최한준)에서는 7월6일~9일(3박4일)간 청소년 하기 Camp 를 52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Korea n Identity 를 주제로 Camp Berachah 에서 잘 마쳤습니다.

Camp 강사로 Sam Lee(올림픽 수영 골드 메달리스트), 이경원기자, 유재근변호사, 김익창박사, 그레이스 김(교육상담), 오계희 박사, 김진숙목사등 여러분이 수고 하셨습니다. 이 Camp를 성원해주신 학부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SAT, PSAT

한인회 교육부(부장 최영우)에서는 7월13일~31일 오전9시~12시까지 학생들의 진학지도의 일환으로 SAT, PSAT 준비를 위한 강좌를 실시하였다. 27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Mrs. Robby Walker(영어선생)씨와 Mrs. Ahava Blaska(수학선생)씨가 수고하였다. 3주간의 과정을 모두 마친후 실시한 모의고사의 결과는 처음 시작 당시 모의고사 성적보다 100점 가량 향상되어 그 성과가 매우 컸던것으로 평가되었다.

올해 수강생들은 주로 10, 11학년생으로 수료식에서 김현중씨 차남 선욱군이 총점 1350으로 1등상을, 변종혜씨 장녀 미경양은 모범상을, 강경중씨 장녀 경화양은 최고 향상상을 수여받았다. 앞으로도 계속 한인회 교육부에서는 자녀들의 대학진학에 관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문의에 응한다고 한다.

●미주체전 참가선수단 결단식

7월11일 한인회관에서 미주체전 참가선수들을 위한 결단식이 있었다.

워싱턴 대표축구단 한국체전 참가를 위한 경비대책회의

일 시 : 1987년 9월17일

장 소 : 신라식당

참석자 : 윤광남 한인회장, 김홍수총영사, 백영기영사, 한국일보, 제임스리



●GTE 에서는 Non-profit Organization에 주는 grant 를 위한 초대에 우리 시애틀한인회가 초대받고 \$100.00을 수여받았다.

●Seattle 시장 Charles Royer 의 초청으로 9월19일 시장관저에서 열렸던 Ethnic Festival 자선모임에 시애틀 한인회가 초청을 받고 윤광남 한인회장 및 이사장, 부회장 부부가 참가하였는데 이날 모임에는 80여명의 인사들이 모였다.



●Pacific Rim 2nd Annual Golf Tournament 참가

9월25일에 Larry Murchant가 주최한 Porthed Row 골프대회 행사는 장학기금을 위한 것으로 이날 한인회에서는 윤광남 회장을 비롯 여러분이 참가하였다.

●한국 며느리·사위의 밤

10월7일 총영사관이 주최한 이날밤에는 Temple Theater에 500여명에 가까운 많은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인회에서도 윤회장이 참석, 그들을 위한 경품일부를 기증하였다.

●건축기금을 위한 Golf 개최

10월3일 한인회 신응호 이사께서는 West Seattle Munciple Golf Course 에서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특별골프대회를 개최하여 거기서 나온 회비 \$1,300.00를 한인회에 기탁했다.



●10월8일 중국영사관(대만)에서 있었던 Founding of Republic of China Reception에 윤회장이 한인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10월16일 Puget Sound Salvation Army Corp.에서 가졌던 모임에서 한인회 윤광남회장이 특별초청을 받고 그들에게 한인회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Korea Work Shop

9월26일 The Lake Wing 박물관에서 한국 역사, 문화, 경제 및 한국 올림픽에 관한 소개가 있었다. 이날에는 신호범박사, 백경숙선생, Mrs. 암스트롱이 강사로 수고했으며 한인회에서는 Reception Party를 제공하여 자리에 모였던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윤광남회장 부부 및 고봉식 이사장 부부, 최영우 교육부장, 고국지 부녀부장등 여러분이 수고해주었다.

●KO-AM TV 방송 확장

10월5일 KO-AM TV사에서 있었던 본사 확장식에 초대받고 또 방송을 통해 본사의 확장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이 방송국을 통하여 우리 한인사회가 더욱 발전하게 될것을 기대하는 축하도 있었다. 앞으로 본 KO-AM TV 사는 채널 18(Viacom)을 통해 토요일에는 10:00~12:00(AM), 주일에는 9:00~11:00 AM 까지 이틀에 걸쳐 하루에 2시간씩 방영하게 될것이다.

금번 방영확장으로 지금까지 극히 일부지역에만 제한되었던것이 앞으로는 커크랜드, 벨뷰, 머서아일랜드, 린우드, 에드몬드, 에버렛지역에서도 본 방송을 시청하게 되리라 한다.

●이사 임원 합동회의

이사 임원 합동회의가 10월23일 고봉식 이사장택에서 있었다.

●경로잔치

10월31일 정오에는 한인회에서 주최하여 특별히 노인들을 공경하는 한국인의 아름다운 양속을 널리 알리며 또 후손에게 심어주는 아름다운 행사로 경로잔치를 한일각에서 가졌다.

이외에도 윤광남 회장은 10월14일 FBI in Charge Don Dukuna 와 만나 한인사회를 소개하고 10월17일에는 오레곤주에서 있었던 포트랜드 한국의밤에 참석하여 워싱턴주 한인사회를 소개했으며, 10월19일에는 올림픽 준비위원 사무차장이신 전대사로부터 올림픽 준비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한국 88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뤄지기를 바라기도 하였다.



한국의 밤이 지난 8월15일 시애틀 Red Lion에서 세버그 부지사 부부, 랄프 먼로 총무장관 부부, 빌 애스베리 국제관계장관, 찰스로여 시애틀시장, 윌리엄 해리슨 1군 및 포트루이스 사령관, 폴 리어슨 시애틀 해군기지 사령관등 다수의 정재계 미국인사들을 포함, 약 4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테일, 기념식, 만찬, 여흥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자리에서 윤광남 한인회장은 킹카운티 도서관에 한국도서 4백60권을, 백영기영사, 애스베리장관, 김상구목사, 박창훈, 이석주, 심영식씨에게 감사장을, 배레트 애딩튼씨등 한국참전용사 10명에게 참전 기념패를 각각 증정했다.

이날 여흥에는 박창훈씨가 지휘하는 UW 합창단이 미국 및 한국가요를, LA서 초빙돼온 5명의 국악인이 고전무용을 추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인회

자손만대에...
길이
빛날 오늘을 위해

오늘, 우리들...
땀흘려 모여서

뭉쳐진 우리의 혼
지켜온 우리의 혼
키워가야 할 우리의 혼

한인회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SEATTLE •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GREENWOOD P.O. BOX 30065
SEATTLE, WA 98103-0065

●시애틀-밴쿠버 B.C. 한인회 합동야유회 및 체육대회

시애틀, 밴쿠버(캐나다) 양 한인회의 연례 합동야유회를 겸한 체육대회가 7월 20일 오후1시 그린우드 팍에서 거행되었다.

개막식에 이어 축구 및 테니스 경기순으로 진행된 이날 야유회는 비가 내리고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양측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 축구에서 1:1 무승부, 테니스에서 3:2로 시애틀이 승리함으로 종합우승이 시애틀 한인회가 되었다.

한편, 양 한인회 임원, 이사들로 구성되어 대결한 친선축구경기에서는 시애틀 한인회팀이 윤광남회장과 성동민 부회장이 각각 1골씩 넣어 2:0으로 승리했다.



본국의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미주대표단 워싱턴주 선수단 일행 25명이 4일 오전 9시 PSA 편으로 시택공항을 출발, 현지로 떠났다.

선수 20명(축구 19명, 테니스 1명)과 임원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 일행은 LA를 거쳐 5일 오후 6시 40분(본국시간) KAL 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출발에 앞서 최주찬 축구협회장은 "워싱턴주 교민의 명예를 걸고 선전분투하겠다. 필히 좋은성적으로 교민들의 후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금번 제68회 전국체전은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광주를 비롯한 인근 7개 도시에서 88 올림픽 리허설 경기로 개최된다.

이번대회는 34개 경기종목에 해외동포 10개 지역팀 등 모두 2만 1천 8백여명이 참가하는 사상최대규모가 된다.

한편 대표단의 제임스리 단장은 본대에 앞서 지난 1일 출발, 이미 현지에 도착해있다. 대표단은 체전참가후 오는 2일 KAL편으로 LA 경유 귀국할 예정이다.

한일각 대표 신응호씨가 주최한 한인회관 건립을 위한 자선골프대회가 3일 오전 10시 30분 웨스트 시애틀 골프코스에서 개최되었다.

대회종료후 한일각에서 시상식을 겸해 디너를 베푼 신씨는 이자리에서 그린피를 제외한 회비와 음료판매대 전액을 포함한 1천 1백 30불을 윤광남 한인회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또 대회에는 불참했으나 신씨의 취지를 전해들은 강동언 전한인회장이 1백불, 한순성씨가 50불을 각각 성금, 이날 회관 건립기금으로 전달된 금액은 총 1천 2백 80불이 되었다.

윤회장은 "각 교민단체들이 스스로 기금을 모아준 행사가 금년에만 다섯차례에 이른다. 뜨거운 교민들의 성원이 회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여 곧 우리의 보금자리가 마련될것이다"고 말하고 신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남녀 골퍼 61명이 참가한 이번 선대회의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메달리스트 박춘석, A조 챔피언 이준구, 1등 김석돈, 2등 최영욱, B조 챔피언 강성국, 1등 심상헌, 2등 이종록, L,D상 노광훈, K,P 상 김일영.

“산천은 예나 다름없는데”

정병국 <칼럼니스트·축우회회장>

한국에 오던 다음날 마침 평소에 존경하는 K교수님이 양평-성우들의 모임-에서 강연을 하신다고 함께 가자고해서 간 일이 있었다. 6월의 훈풍이 차창을 통해 제법 훈훈하게 느껴졌고, 북한강을 끼고 달리는 기분은 아주 상쾌했다. 능수버들이 길가에 즐비한데 낚싯대를 드리운 아마추어 사공들의 모습이 그림처럼 평화롭게 보였다. 강변 모래사장에는 형형색색으로 된 천막들이 울망줄망 쳐져있는데 새파란 강물은 마치 비단결처럼 고왔다.

이처럼 조국의 산천이 아름답고 멋있게 느껴진적은 별로 없었다. 특히 별거숭이였던 산들이 지금은 시퍼렇게 나무들로 우거져있고 새들의 울음소리며 갖가지 꽃들이 다투어 피어있는데 유독 인심만이 사나워져 서로 쳐다보는 눈초리들이 살기가 등등하다. 자연은 예나 다름없이 아름답고 순수한데 왜 인정은 이리도 메말랐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서로 속이고 헐뜯으며 사는 사람들이 가끔은 흐르는 강물도 바라보고 우거진 숲과 파아란 하늘을 쳐다보며 자신의 시작됨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인생과 예술”이란 제목의 강연은 정말로 멋있었다. 성우들이란 목소리로 밥을 먹고사는 사람들인지라 하나같이 성대들이 좋았다. 그런반면 인물들은 목소리만큼 아름답지를 못했다. 물론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것을 깨달았다. 얼굴이 예쁜 배우나 모델들은 대개 목소리가 얼굴만큼 예쁘지 못한것이 사실이다. 또한 재주가 많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대개 몸이 약하거나 출물들이 많다. 물론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한가지 이상의 재질을 조물주는 허용치 않은것 같다.

돈이나 권력에 탐닉하여 평생을 사는 것보다는 양심과 사랑을 가지고 멋있게 한세상 사는것이 예술적 인생이라는것이

K 교수님의 강연요지였다. 덧붙여서 K 교수님은 정치에 대하여도 일가견을 폈다. 국민을 외면한 정치는 있을수 없다. 정치인은 그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자신들이 주인인양 외치고 있으니 이나라의 민주주의는 죽은것이냐 다름없고 독재정치를 하면서 겉으로만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내용이었다.

체루탄 개스때문에 서울시민은 모두 울어야했다. 민주를 외치는 학생들에게 체루탄을 쏘아대고 돌을 던지며 머리를 터뜨리고 방망이를 마구 흔들어대는 참상을 보고 오래간만에 찾아온 조국땅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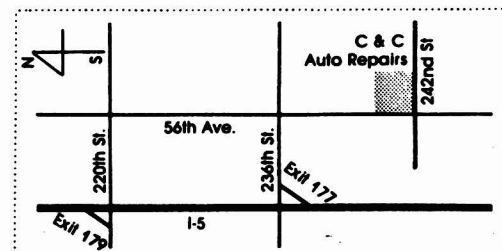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이제는 스모그와 체루탄개스가 가득하니 서글프기만 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으니까 성장의 과정에서 필요불가결하게 이런 참상이 있을수도 있지만, 문제는 권력을 잡은 집권당에서 평생토록 자기네들만 권력을 잡겠다고 버티는데서 생기는 것이다. 원래 군인은 본연의 자세와 책임이 국방이지 정치가 아니다. K 교수님말대로 군인은 총무공처럼 임무를 수행해야 존경을 받는다.

야당도 무엇인가 착각을 해서는 안된다. 마치 학생과 국민들이 데모를 하고 피를 흘리는것이 야당을 위해 하는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야당이야말로 이식점에서 냉철하게 국민입장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바른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너희들이 오래해먹었으니 이제는 우리차례다”하는 식의 욕심을 부려서는 안된다.

내년초에 현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또 새 헌법과 새 정부가 들어서서 탄탄한 민주정치가 설때까지 약 1년을 과도정부형식으로 정부를 만들어 법국가적으로 내각을 구성하여 88 올림픽도 잘 치루고 참신한 민주주의의 정부를 세우도록 거

C&C Auto Repair

24107 56th Ave. W.
Mountlake Terrace, WA
(206) 778-4695 (Business)
(206) 745-5206 (Home)



Open Monday — Saturday

8:00 a.m. to 6:00 p.m.

국내각을 구성함이 좋을듯하다.

올림픽은 우리나라만의 행사가 아니고 세계적인 체전인 동시에 인류의 평화와 양심이라는 슬로건이 있다. 또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모든시설을 이미 다 만들었다. 만약 올림픽이 무산된다면 국가적인 체면은 말할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알거지가 되고만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누가 말했지만, 종교지도자들도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데, 그런 욕심까지야 부릴수 없지만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주인이 누구며 자신들의 하는일이 무엇인지는 알아야겠다.

이야기를 나누는동안 차는 어느새 서울에 도착했고, K교수님과도 헤어졌다. 오랫동안 하고싶은 이야기도 했고 좋은 말씀도 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올림픽공원과 선수촌의 아파트가 보인다. 역시 무서운것은 사람의 손이다. 이 허허벌판에 어느새 저런 큰 건물이 들어서고 공원이 생겼을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것도 인간이요, 무질서속에서도 질서가 피어나게 하는것도 인간이다.

이 나라에 참 민주주의의 꽃이 피는날 산천도 우아하게 인간을 맞으리라 생각한다. 그 시절에는 우리가 서로 만나면 사나운 눈초리는 사라지고 인자한 눈빛이 서로 오고 가리라고 믿어진다.

이동훈

법률사무소

622-5085

1221-2nd Ave Suite #410 Seattle, WA 98104

The Seattle Times,
KIRO TV Eyewitness News 에
격찬한바있는 시애틀 유일의 즉석불고기,
한정식회관



KOREAN AND JAPANESE

※신라가족을 찾습니다※
맛과 분위기. 그리고 서비스!
우리 신라가족 모두는 항상 정성어린
마음으로 한국의 전통요리와 문화를
미국에 소개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식 (즉석불고기, 냉면, 기타일체)
일식 (스시바, 사시미, 덴뿌라, 샤브샤브)
칵테일
별실, 단체석 완비, 무료주차장 완비

---영업시간---
월~금 AM 11:00~11:00 PM
토~일 PM 1:00~11:00 PM

2300 8th Avenue
(Denny Way & Bell St.)
623-9996 223-9289

소양강변의 교훈

황동규 <워싱턴주 한인배구협회장>



밤낚시꾼과 새벽낚시꾼

강태공의 칭호를 받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었던 부친의 낚시바구니를 들고 따라다니던 어린시절의 인연으로해서 한때 호수낚시에 심취한 일이 있었다. 팔십평생을 고기를 낚는게 아니라 세월을 낚으며 때를 기다리던 위수의 현인 한 초라한 낚시꾼이 장차 「서백후」를 도와 은나라의 폭군 주왕과 시대의 가인 「달기」의 단꿈을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세워 일등개국공신이 되었다는 강여상의 얘기는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낚시질이 고상한 취미이며 유유자적하다는 도락이라고 추켜세우는 낚시꾼들의 명분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떠오르는 동녘하늘의 여명속에 증발된 수증기가 저녁노을의 연기같이 호수가 산마루에 걸쳐있던 아름다운 한쪽의 산수화 화폭속에 낚시줄을 담그고 월척에 꿈을 걸던 소양강변의 새벽낚시의 정취를 지금도 잊을수가 없다.

때는 바야흐로 낚시의 황금시간 어족들의 조찬시간이다. 가끔씩 물을 차며 끌려나오는 고기들의 단발마적인 요동소리만이 산간호수의 정막을 깨고 밤이슬을 맞으며 지새운 태공들의 가슴이 부풀기 시작하는 긴장된 순간들이다.

이제 막 대어상을 받게될 큰 사건이 일어날것만 같은 예감속에서 소양강변의 늙은 화전민의 주름살만큼이나 출렁이는 물결위에 가물거리는 찌를 응시하던 눈 넘어 저멀리서 물려오는 또하나의 큰 집단이 보인다.

XX낚시회의 표지도 선명하다. 때와 장소를 놓칠세라 이곳저곳을 살피기에 분주하다. 오랜세월 쌓아올린 낚시터 풍수지리학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명당자리를 찾아 각자 포진한다. 받침대를 꽂고 방향과 수심을 맞추는 동작이 마치

잘 훈련된 훈련소 조교만큼이나 기민하고 그 숨씨또한 숙련공같이 노련하다.

입시장같은 긴장과 침묵이 얼마동안 흐르고 이곳저곳에서 간간히 고기를 낚아올리는 소리에 낚시꾼들의 신경이 집중되고 눈길이 쏠린다.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밤낚시꾼들의 성적이 조금전에 당도한 새벽낚시꾼들을 능가한다. 올렸다면 어제밤을 지새운 밤낚시꾼중의 한 사람이다. 한쪽에서는 계속 낚아올리고 한쪽에서는 초조하게 담배만 빨아대는 불공평한 양상이 여기에서도 벌어지며 얼마동안의 신경전이 계속된다.

언제나 끝은 낚시에 미끼도 물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팔십평생을 낚시질만 하면서도 고기 한마리도 잡지못한 태공의 풍류를 흉내내기에도 한도가 있는법인가 보다.

욕심이 많이 보이는 한 새벽낚시꾼이 아예 낚시줄을 건어올려놓고 밤낚시꾼의 진지에 들어선다. 신경전을 끝내고 이젠 첩보전을 벌릴셈이다. 낚시바구니를 들어보는 눈초리에 선망과 시기가 엇갈리는듯 하더니 바늘의 크기, 추의 무게, 밑밥의 종류와 사용여부, 낚시밥은 무엇이든 어떻게 입질을 하느냐등 모두가 전문가다운 질문을 던진다. 모든정보를 입수한후 자기의 진지로 돌아간 그가 보고들은 그대로 모방하여 시도해본것은 말할것도 없지만 아직 고기를 낚았다는 소식은 없다.

얼마후에 또 한사람의 척후병이 접근한다. 이번에는 낚시밥종 나누어 쓰잔다. 자신이 정성을 들여 개발한 미끼를 나누어 써야만할 어로협정을 맺은바도 없고 유무상통하는 자매결연을 맺은바도 없는 사이지만 유유자적한다는 태공들의 불문율이 있기에 어쩔수없이 부족한 낚시밥

을 나누어주는 여유를 보인다.

얼마동안이 또 흘렀으나 밤낚시꾼이 단연 우세하고 새벽낚시꾼이 열세에 빠진 현상은 좀처럼 시정되지 않는다. 이상한 일이라고 고개를 가우똥하고 냉기숨을 앓던 그들이 "심은대로 거둔다"라는 이치를 깨달은것은 그후 몇시간이 지난 후 귀가길에 오른 대철버스안에서였다.

신청전 다음에는 첩보전이 첩보전 다음에는 크던작던 정규전이 벌어지는 전투의 원리가 여기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에는 용감한 한 새벽낚시꾼이 낚시대를 다 걸어가지고 무장을 한채 밤낚시꾼의 진지에 파고 들어왔다. 백병전이라도 하겠다는 기백이다.

얼마동안의 불편한 관계가 지난후에도 좀처럼 여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아마 어족회의에서 하루전부터 많은 식량을 공짜로 던져준 밤낚시꾼의 온정(?)을 보답하는 뜻에서 밤낚시꾼들의 밥만 먹이로 가결을 했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지않고는 같은 크기의 바늘, 같은무게의 추, 같은종류의 미끼, 심지어 같은장소에서 낚시줄을 던지는데도 어찌하여 밤낚시꾼의 성격이 그토록 우세하던 말인가?

「우물안의 개구리」의 습성

까마득히 잊혀진 지난 낚시터의 「해프닝」이 다시 뇌리에서 되살아난것은 몇일전 한인업소를 상대로 불건을 공급하는 도매업자 한분을 만나 그가 토로한 한탄 어린 독백을 들은후의 일이다. 비교적 교포들의 사정을 잘아는 그가 나에게 들려준 탄식의 소리는 이러하다.

“선생님, 참 한심해요. 같은업종을 가지고 있는 교포끼리의 경쟁이 말이 아니에요. 칼만 안들었지 죽기 아니면 살기요 심지어 형제간의 극에 달한 경쟁을 눈물뜨고 불수가 없어요” 말하는 그의 표정이 참으로 자못 심각하다. 그들앞에서 감히 말할수 없었던 속에 맺힌 의분을 그들과는 아무판계가 없는 내앞에서 우발적

회전은 이제 종반전에 접어든다. 초조해진 새벽낚시꾼의 출던지는 방향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밤낚시꾼의 거점에 점점 접근하기 시작한다. 속셈은 뻔하다. 지금 고기를 낚아올리는 바로 그 지점에 자기의 낚시를 담구는 최후의 방법을 시도해보기 위해서다. 같은 밤그릇에 수저를 담그기를 불사하겠다는 체면불구의 도전이다.

이쯤이면 자연을 낚고 세월을 낚는다는 태공들의 풍류와 도락과는 거리가 먼 얘기다. 서로 낚시줄이 열키고 또 설키니 고요한 호수가에 격한 음성이 메아리치고 피차 더이상 고기를 낚지도 못하고 낚시대를 걸어버린다.

아주 쓸쓸한 여운을 남긴채 귀로에 오는 그들의 발걸음이 한없이 무거워지고 저녁노을 호수가에 비친 그들의 성난얼굴이 출렁이는 물결의 파장속에 이그러질대로 이그러진다.

넓은땅에 와서까지 벌이는 치열한 생존의 싸움, 이것은 마치 5대호에 삶의 터전을 옮긴 우물안의 개구리가 좁은우물 안에서 살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서로 엉키고 부딪히며 활취는 행동을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계속하고 있는것이나 다를바가 없다.

창조주가 누구에게나 공짜로 주신 「나」라는 개성과 「나」만이 할수있는 특별한 재능은 다 꿩개치고 「남」을 쳐다보며 「남」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모방의 천재들이 벌이는 치열한 경쟁의 단면을 듣고 거의 즉각적으로 고기를 낚던 소양강변의 새벽낚시꾼들의 추악한 모습을 연상해낸것이 지난친 비약만은 아닌것은 「온고지신」이란 옛말과 같이 지나간 새벽낚시사의 사건을 남이 아닌 나와 어제가 아닌 오늘의 현실속에 조명해봄으로써 참 교훈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그날 밤낚시꾼들이 더 많은 고기를 낚시할수 있었던 반면에 새벽낚시꾼들이 이에 미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이었으며 왜 그들은 피차 고기를 낚지도 못하고 결국 서로로 마음이 상하게되고 그날의 풍류를 망치게한 요인은 무엇이었나?

이 질문에 대한 그럴만한 답변을 찾아내기란 그렇게 어려운것이 아닌것 같다. 밤낚시꾼이 성적이 좋았던것은 그들은 고기를 낚기위해 창의적이고 예비적인 준비와 비교적 긴 안목에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기 때문인 것이다. 다시말해 새벽낚시꾼들이 집 따듯한 아랫목에서 편안하게 쉬고있던 그 시간에 이들은 밤이슬을 맞으며 밑밥을 주고 때를 기다리며 고생을 참아온 인내의 시간이 있었고 여타가치 바늘, 추, 먹이를 썰보며 어족들의 기호와 생리를 살피는 연구와 현장의 실제를 체험한 까닭이며 그들은 이와같은 노력과 투자에 대한 긍정하고 정당한 댓가를 보상받은것이다.

거기에 비해 새벽낚시꾼들은 그러한 투자가 전혀 없었고 그들은 그저 새벽은 낚시의 황금시간이다 하는데에만 초점을 맞춘것 뿐이다. 그들에게는 사전에 정확한 정보도 갖지못할뿐만 아니라 고기를 한곳에 유도해낼만한 예비적 투자가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잘 낚아올리는 사람이 하는대로만하면 나도 잘 잡겠지 하는 약삭빠른 모방성향이 발동한 것이다.

같은 바늘을 쓰고 같은 무게의 추를 달고 똑같은 먹이를 쓴다면 나라고 못잡으란법이 있겠는가 하는 계산에서 일 것이다. 남이 하는것을 그대로 본따서 하는데 여러가지 이점이 없는것은 아니다. 남의 창의적 연구와 노력을 보상없이 취하고 시간과 품질을 벌고 남의 값진 경험을 공짜로 받는다. 이보다 더 수지맞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당장 교양만 생각하며 자기이의만은 추구하고 돈에 진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선 선의의 경쟁이니 혹은 도덕윤리다 하는말은 모두 사치스러운 얘기들이다.

그들은 사생결단의 떠를 두르고 생존의 싸움터에 나간다. 그들에게는 내일의 제란보다는 오늘의 암투를 택하고 보이지 않는것보다는 보이는것에 그들의 마음 전부를 쏟는다.

무료생활영어강좌

본 상담소 주최로 무료 생활영어강좌를 아래와 같이 열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 1987년 11월 7일부터 매주토요일

오전 9시 ~ 12시

장 소 : 한인생활상담소

Woodland Park United Methodist Church

302 N 78th St

(78가와 그린우드에 위치)

강 사 : 민난희

연락처 : 784-5691

한인생활상담소

모방성향과 생존경쟁

인간의 의식구조에는 창의성과 모방성의 각각 얼굴이 다른 양면이 있다. 창의성은 독자성이 있으며 무한한 가능성과 발전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 창의성으로 해서 인류문화는 지속적으로 발전 향상되어온 것이다. 반면에 항상 남의 뒷전에서 결눈질만 해야하는 모방의 결과는 새롭게 뻗어나가는 창조력이 없기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채 항상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창의성은 개성이 강하고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초연한 입장에 서게되나 모방성은 개성이 없는 무리들이 항상 남의 주변을 선회하고 따라다니기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래서 서로 부딪히고 늘 소리가 나며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기 마련이다.

한사람이 어느업종을 시작하면 다음사람이 이를 따르고 그 다음사람이 그대로 흉내를 내고 해서 번져가는 속도는 무서울 정도다. 잘된다고 소문난 업체를 모방하기 위하여 소위 산업정보전이 벌어지고 드디어는 같은거점에 낚시줄을 던지는 소양강변 새벽낚시꾼의 추한 사례가 태평양 선거 전미주땅에서 아니 퓨젯사운드 연변에서도 이제 심심치않게 벌어진다는 소문이다. 창의성은 개성이 강하기에 유행에 둔감하나 모방성은 유행에 민감하다. 그러기에 모방성이 강한 인간의 속성이 발동하면 순식간에 획일적인 로보트의 큰 집단이 물결친다.

유행은 멋을 부리는일에만 있는것 같지는 않다. 직업의 선호에도 유행이 있고 비즈니스에도 유행의 물결이 치며 심지어 취미생활까지도 예외는 아니다.

같은 모습을 가진 개성없는 사람들의 집단이 상호영향권 안에서 남을 이겨야 내가 살아남는다고 하는 강박관념속에서 살고있으니 경쟁은 필연적인 산물이며 이 경쟁에서 너도 살고 나도 하는 공영공존의 진리를 그들이 깨닫지 못할때 힘센 자만이 살아남는 양상으로 치닫기 마련

이다. 적자생존의 싸움엔 승리의 여신은 없다. 오직 패자들의 모습만이 처참할 뿐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생활 「패턴」의 역사적 배경과 가치관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이해하며 생활정보와 활동분야에 많은 제약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행동반경이 매우 작다는 사실을 모르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짊고 넘어가야할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싶은것은 첫째 창의적인 의욕과 노력의 투자없이 남의 피와 땀의 결정을 도용하려고 하는 약삭빠른 모방성향과 그리고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자생존 혹은 약육강식이란 낱말을 서슴치않고 쓸만한 원색적인 생존경쟁과 생활윤리의 타락에 바탕을 두고 있는것이다.

우리는 우물같이 협소하고 답답한 세상에서 바다같이 넓은 5대호에 삶의 터전을 옮겼다. 우물에서 빠져 자라고 반평생이상을 살아온 우리가 바다같이 넓은 호수의 새생활에 하루아침에 적응하기를 기대할수는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것은 호수는 우물보다 많은 가능성과 길이 있음을 알고 짧은 인생이나 긴 안목으로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여유가 아쉽다. 「마라톤」이 올림픽 경기를 결산하는 꽃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것은 42k m 나 되는 진 코스를 주파해야하는 땀과 눈물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수확의 기쁨이 있고 땀과 눈물을 뿌리는 「마라톤」의 주자는 승리의 환희가 기다리고 있다.

당장 고기를 내 손안에 넣어야하는 실리적인 욕구충족도 매우 소중한 일이나 그보다도 우리의 기쁨을 낚고 감사를 낚고 소망을 낚시하는 높은 차원의 낚시질에 이제 심취해보고 싶은 태공다운 풍류에 마음이 풀린다.

예수님의 무덤이 이 땅에는 없다. 보이는것만을 위해 사는것은 헛된 인생을 잠깐 사는것이요 보이지 않는곳에 내 삶을 거는것은 영원히 사는길이다.

창조주의 솜씨로 지어진 이 자연에는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으며 각기 제 모습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진선미의 극치를 지니고 있어 어머니의 가슴같이 포근한 자연의 한 호숫가 맑은물에 내 모습을 비추어본 소양강변의 밤낚시는 지금도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삶의 지혜와 많은 교훈을 준다.

다운타운 오버나이트 인쇄소

각종한글 및 영문인쇄

621-9412



1025 Stewart St
Seattle, WA 98101



즉석숯불구이



로스구이
숯불갈비
삼겹살
돼지주물럭
돌솥비빔밥

特
味

- 박준호약단
- 나이트클럽

고향에서 옮겨온 맛
한일각
대표 신용호

영업시간 11:30-2:30까지에는 차를 정문앞에
대시면 출입권이 파싱해드립니다.

(206) 587-0464
409 Maynard Ave. So (In China Town) Seattle, WA 98104

• 족발, 웨이수레스, 디어워서 구함.

상황윤리(狀況倫理)

— 방향없는 임기응변의 윤리 —



박 건 흥

30여년전 대동아전쟁에서 패망한 일본이 미국에 항복하고 점령을 당하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변을 보였다. 전아세아와 세계까지를 집어 삼키려는 야망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약소민족을 참혹히 짓밟으며 대량학살까지 서슴치 않았던 일본이 싸움에서 지고 강자의 손아귀에 놓이는 처지에 이르자 야수와 같던 얼굴을 한순간에 순진한 양처럼 바꾸어 “평화주의”의 기치를 들고 미국의 점령통치를 가슴을 벌려 환영하면서 전후세계에 살아 남는 여처구니 없는 변모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이러한 탈바꿈을 보고 어떻게 한나라가 것처럼 하루 아침에 180도로 표현할 수 있었던가 라는 수수께끼를 풀어 보려고 수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고심 했다. 그중 당시 Nippon Times의 편집부장이었던 가즈오 가와이라는 언론인은 불가해한 일본의 변모를 “상황윤리”(Situational Ethics)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했다.

일본은 철저하게 패망했고 그들의 환상적인 꿈도 깡그리 무너졌다. 남은것은 패배 의식과 공포 뿐이었다. 모두가 전멸당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 쌓인 일본인들에게는 완전항복과 승자에 의한 다스림을 환영하는 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돌파구라고 느꼈을 것이다. 말하자면 생존 본능이라고나 할까. 그런 의식이 당시 일본인들이 봉착했던 상황에 대한 행동윤리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깊은 이유는 서양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동양적인 행동양식에서 일본인들의 행위를 파악 할 수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서양에서는 모든 사람이 신과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보편주의적 윤리”를 발전시켰으나 다신론적인 신앙관과 복수적인 인간관계의 관념속에서 형성된 동양사회에서는 하나 하나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개개인의 사회적·인간적 관계가 각기 독특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서양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어떤 일반적인 원칙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으나 동양에서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사이의 관계와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각각 달리 해석되고 해결된다. 바꾸어 말하자면, 전쟁중 미국은 철저한 원수였으나 패전으로 인하여 상황이 바뀌어 졌으니 이제 새로운 상황속에서 승자와의 관계가 새롭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결론적으로 가즈오씨는 일본인들의 사고는 “극단적인 유연성”을 보여 줄 수 있는 동양적 윤리의 산물이기 때문에 따져보면 놀랄것이 없다는 식으로 전후 일본이 보여준 경악스러운 행동을 그럴듯하게 변호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예가 오늘 날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경우와는 비교 될 수 없겠으나 동양문화의 소산인 “상황윤리”라는 말이 어떤지 평소 우리들이 사고하는 방법이나 행동하는 모양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처럼 들린다.

지난 몇년 동안 이 지역 한인사회 안에서 발생된 여러가지 많은 사건들속에서 그런것을 발

견할 수 있지않나 생각된다. 한인회 - 영사관 파동, 노인회분규, KIRO-TV의 엄도승 박사 왜곡보도사건, 1987년도 한인회장선거 과열현상 등..... 모두 한인사회를 극도로 자극 시키고 여론을 분열시킨 사건들이다. 이제 꼼꼼히 지난일들을 돌이켜 보면 이런 격동적인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교포사회의 관심과 반응은 얼핏 어떤 일관성 있고 원칙이나 한인사회가 내세울 만한 공통적 규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현상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던것 같다. 다시 말해서 교포사회에 어떤 커다란 이슈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교민들의 찬·반 또는 판단기준은 어떤 공통적인 신념이나 원칙에 따라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눈치 빠른 상황판단과 나와 주변과의 관계 그리고 내 입장의 편리를 계산하여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지배적 현상이었다는 것이다.

만약 이와같은 현상이 사실이라면, 하나의 문화집단으로서 미국사회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한인들의 행동양식은 한가지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 그것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인사회는 방향 감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윤리”의 본질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 들일수 밖에 없다는 자기변호에서 시작되기 일췌이다. 앞서 말한 패전 일본의 태도표변을 일본인들은 과거 역사에 유례가 없는 미지의 상황이기 때문이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그들은 대동아공영권이니 내선일체니 하는 제국주의 이론과 원리 그리고 식민통치의 실천강령을 화려하게 만들어 모든 사람에게 철저히 훈련시키고 있었지 않았던가? 새로운 상황이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말은 원칙이 있었던 나의 과거에 대한 부정이거나 현실을 판단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자인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곳 한인사회에 심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안이한 상황윤리의식에 빠져 자칫하면 방향 감각을 잃고 허둥대는 위험은 무엇보다도 리더쉽의 빈곤과 커뮤니케이션의 폐쇄현상에서 기인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리더쉽의 빈곤이란 미국사회속에서 한인공동체를 건전하게 이끌고 나갈수 있는 지도층이 빈약하다는 말이고 커뮤니케이션의

폐쇄현상은 교민들간의 자유롭고 건설적인 여론 형성을 조장할 수 있는 언론이 없다는 뜻이다.

지나친 비판으로 들릴지 모르나 이곳 우리 한인사회에 훌륭한 인제는 많으나 아직도 그들이 힘을 합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사회의 구심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리더쉽은 미국사회 안에서 한인사회가 서 있는 현재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기초로 미래를 향한 비전을 만들어 주는 건전한 지도자층이다. 이런 리더쉽, 그룹이 형성될 때 많은 의견이 집약될 수 있고 한인사회에 제기되는 문제를 널리 교민들과의 성실한 대화를 통하여 전체가 지향해야할 방향설정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많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 그것을 토대로한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는 견고한 지도자층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곧잘 우리앞에 “1회용 지도자”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된다. “1회용 지도자”란 마치 한번 쓰고 버려지는 소모품 처럼 단명의 리더쉽이라고나 할까? 말하자면, 작년과 올해의 한인회장이 한인사회의 커다란 청사진을 실현하는 작업을 나누어 하면서 사명을 이어가는 그런 승계의 관계가 아니라 작년은 작년 대로 올해는 올해 대로 따로 제각기 끊겨진 자기 토막만을 만들고 끝나는 지도자유형이 그런 것이나, 거기에다가 앞에 나와서 일 해 보겠다고 나서는 한인사회 대표자들 가운데에는 남을 이끌수 있는 자질과 소양도 충분히 갖추지 못했고 미국사회의 심층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인물이 있음을 우리는 가끔 본다.

그런 사람은 일시적인 자기과시나 명예욕 때문에 또는 한인사회의 공통적 이익과는 동떨어진 어떤 특수 이익을 위해 앞에 나와 곡에서 같은 쇼를 벌리다가 쑥스럽게 퇴장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런 인물들이 곧잘 범하는 가장 큰 과오는 자기중심이 없으므로 상황에 따라 자기보존에 가장 유리하다고 느껴지는 세력 또는 사태의 흐름을 추종하는데 앞장서기 때문에 한인사회의 방향을 더욱 더 혼미속에 빠뜨리는 것이다.

한인사회 안에서 건전한 리더쉽이나 흔히 말하는 오피니언 그룹 (opinion group)이 형성되어 교민들 사이에 서로 맥박과 호흡이 가다듬어지는 분위기가 이루어 지려면 무엇보다도 대중적인 매개를 통한 건설적인 의사교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 사회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원활히 교환되어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터득하고 그 해결점을 모색하게 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물론 "사회의 공기"를 자처하는 언론기관의 공정하고 성실한 역할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곳 한인 사회에는 언론다운 언론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경쟁이 없는 정체상태에서 기존 언론기관이 보도를 독점하고 오피니온 메이킹을 사유화하는 경향 때문에 진정한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거의 막혀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인사회에 제기된 대부분의 문제에 대하여 범교포사회적 토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대개의 경우 보도기관의 일방적인 판단이 교민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위 노인회분규, KIRO-TV의 엄박사 문제, 허위보도사건등 최근 한인 사회의 주요사건의 전개과정을 돌이켜 보아도 대부분의 교민들은 그 사건들의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인포메이션도 전달 받지 못한 채 편견을 가진 어느 특정인이 마음대로 써갈진 얼룩진 의견을 마구 강요받아 상황 판단에 혼돈을 갖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다운 언론이 한 사회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인들 만큼 뼈저리게 느낀 나라사람도 드물 것이다. 우리가 고국에 살던 시절 그리고, 그전과 그후 오랫동안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수난을 받으면서도 정론을 위해 용감히 싸운 훌륭한 언론도 많았다. 그러나 언론은 가증한 다른 한편의 추악성도 보일 때도 많았다. 이른바 "자유당시절의 신문기자"는 공포와 혐오의 대명사처럼 쓰여질 때가 있었다. 자기에게 굽실거리지 않거나 뇌물을 주지 않는 사람의 약점을 파내고 신문에 공개하여 패가망신을 시켰던 사이비 언론인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또한 정권이나 강자의 편에 붙어 약자를 대변하는 언론을 탄압했던 친위언론이 얼마나 많았던가?

이제 2천년대를 향해 오늘 첨단시대의 미국을 살고 있는 한인들이 이런 원시적 과거의 악몽을 상기만 하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설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속에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많다 하더라도 그 마력에 흡수되어 혼돈에 빠지지 말고 상황의식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용기와 지혜를 잃지 않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도로규칙

심영식 <아시안 변호사회 회장>

1974년 한국방문시 가장 어려웠던일은 택시를 타는것이였다. 택시운전사들은 한국에서는 운전하는 어느누구와 같이 서울에서나 소도시에서나 도로규칙을 전혀 염두에 두지않고 험악하게 운전을 하여 매번 택시를 탈때마다 나는 복부에 경련을 느꼈고 브레이크를 밟고싶은 상상으로 인하여 오른발은 항상 피곤해지곤 하였다.

그이래 처음으로 이번 9월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 듣는바에 의하면 교통은 더욱 나빠지고 운전사들은 더욱더 민첩해졌다 한다.

이곳 미국에서는 우리모두가 안전을 위주로 침착하게 운전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개 도로규칙을 잘 지킨다. 심지어 Los Angeles 나 New York 에서 가장 바쁜날 운전하는이들도 한국운전사들에 비하면 온순한 편이다. 미국에서의 이 안전주의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어느 인간이 그렇듯이 우리는 인체부상이나 경제적 손실을 싫어한다. 또한 형법상이나 교통법상의 처벌을 싫어한다. 우리사회는 거리에서나 고속도로에서 지켜야할 복잡한 규칙들을 만들어내었다.

이 규칙들은 도로에서의 운전사들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말해주며 이 규칙들을 위반하는 험악하고 경솔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형법 또는 교통법 처벌이 내려진다. 이 규칙들은 또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민법소송 근거로 참작될 수도 있다. 미국사회에서는 운전사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면 그 부주의로 인한 손해를 운전사가 배상하여야 하며, 이 규칙들은 언제 운전사가 부주의 했는지 밝혀준다.

주어진 지면관계로 이 기사는 자동차를 운전할때 지켜야할 몇가지 규칙들만을 지적하였다.

제일 보편적인 교통위반은 속도제한을 지키지 않는것이다. 워싱턴주법에 의하면 "누구나 잠재적 재앙을 참작한 정상적 그리고 적절한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운전하지 못한다"라고 나와있다. 표시된 속도제한 규칙이 위배되지 않는한 법을 따르는 경우가 되겠지만, 특이한 상황에서는 이 표시된 속도로 가는것도 위반이 될 수있다. 예를들어 기후가 나빠 표시된 속도제한으로 운전하는것이 안전하지 않다면, 즉 앞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도로사정이 좋지않을때는 속도제한을 지켜도 법을 어기게 되는것이다. 보기도문 예를 한가지 들어보면, 나의 법대친구가 나에게 한번은 말하기를 시속 55마일 속도제한 구역에서 55마일로 가면서 Playboy Magazine(성인잡지)을 보며 운전을 했다 한다. 순찰을 하고 있던 도로경찰이 운전대위에 있는 잡지를 보고 차를 정지시켜 속도위반 티켓을 주었다한다. 나의 친구가 경찰에게 속도위반을 하지 않았는데 왜 티켓을 주냐며 물었더니, 경찰이 말하기를 그러한 상황에서 그가 운전하고 있던 속도는 위험하다고 답하였다 한다. 무안하고 할말을 잃은 그는 다시 반구하지 않았다 한다.

또 한가지 기억할것은 너무 천천히 운전하는것도 부주의한것으로 간주될수도 있다는것이다. 만일 시속 55마일 속도제한인 도로에서 시속 30마일로 간다면 교통량이 움직이는데 위험을 초래할수 있다.

또한 추월(passing)이 불가능한 2차선 도로에서 천천히 가는차뒤에 다섯대이상의 차가 따르고 있다면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빨리 가도록 적당한 곳에서 나가는 길을 찾아 비켜주어야 할것이다.

류 종합보험

Allstate®



362-2692 사무실

672-7884 자택

*언제나 신뢰하고 맡길수 있는

류창명 종합보험

12708 Lakecity Way NE Seattle, WA 98125

- 차보험
- 사업보험
- 용자알선
- 생명보험
- 교육보험
- 가옥보험
- 건강보험

워싱턴주에서는 운전사가 속도위반을 할 경우 승객이 운전사에게 경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아는가? 승객이 그렇다고 항상 속도계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나, 너무 속도가 빠르다고 느껴질 때 운전사에게 경고해야 한다.

아마도 제일 흔한 차 사고중의 하나는 뒷차 운전사의 부주의로 인한 차 충돌 (rear-end collision)이다. 이러한 경우 제정된 법에 보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근본적 의무는 뒷차 운전사에 있으며... 위험하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뒷차가 앞차를 바꿨을 때는 뒷차 운전사의 잘못이 된다" 운전사는 항상 갑자기 정지해야 할 경우를 고려하여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운전하여야 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은 시속 10마일당 자동차 한대의 길이를 곱한 거리를 앞차와의 안전거리로 두고 따라간다. 그러므로 시속 55마일인 곳에서는 앞차와 차 5 1/2대의 거리를 두면 안전하다.

또한 눈이나 비로 표면이 미끄러운 경우에는 더 많은 거리를 두어야 한다. 뒷차 운전사가 사고를 방지할 수 없을만한 특별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는 한 법적으로 앞차가 유리하기 때문에, 항상 뒷차 운전사의 부주의로 돌아간다. 예를 들어 심한 눈보가 쳐 뒷차가 앞차를 바꿨을 때, 시야가 갑자기 안보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뒷차 운전사의 과실로 판결이 내려진다. 이렇게 법은 대개가 뒷차에 책임을 추궁하는 경향이 크다.

사고가 잘나는 또다른 예는 교통 신호가 없는 네거리에서(신호등이나 사인이 표시되지 않은 곳) 일어나는 사고다.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든지 네거리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먼저 지나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주법에 의하면 두차가 네거리에 도착했을 때 왼쪽차가 조금 먼저 도착했을 경우라도 왼쪽차는 오른쪽차에게 양보를 해야 한다.

교통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에서 신호등이나 사인을 꼭 지켜야 한다.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켜졌다 할지라도 금방 출발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좌우를 살펴 지나가던 차에게 양보를 하고 출

발하여야 한다. 정지사인이나 빨간 가로등이 있는 네거리에서는 먼저 정지하고 지나가던 차나 또다른 도로에서 빨리오는 차에게 양보를 하여야 한다. 출발할 차례가 왔다해도 항상 경계하고 급하게 오는 차가 있으면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이다.

지면관계상 그외의 여러가지 경우를 다 설명할 수 없으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규칙을 따르라고 해서 그것을 꼭 함법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법은 항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태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 규칙들의 원리는 운전을 할 때 안전한 상태에서 다른 운전자들의 행동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잘 권리가 있었다해도 사고원인이 되었다면 교통법 위반에 걸릴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법정에 설 수도 있는 것이다. 사고로 인한 민소송에서는, 먼저 잘 권리가 있었다면 양측이 모두 원인이 되는 만큼의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우세한 쪽의 판정은 얼마만큼의 원인이 법원에서 그에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기율 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끝으로 할 말은 한국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거의 험악하게 운전을 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수비적으로 운전하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 고 경제적 손실을 피하는 길이다. 규칙을 잘 지키는 것 이외에도, 눈은 항상 도로를 응시하고 언제 당할지 모르는 사태를 위하여 갑작스런 조절을 해야 할 준비상태에 있어야 한다. 항상 「안전」을 생각하라. 이 새로운 땅에서 필요없는 인체부상이나 법정에 서는 것 이외에도 우리는 복잡한 생활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Certificate of Deposit(C.D.)-정기예금

최한준 <한인회 청년부장>

전편에는 Mutual Fund(투자신탁)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설명을 했는데 많은 독자들의 문의전화와 받고 좀더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투자신탁들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모든 투자를 취급할 수 있는 정식 license(series 7)를 소유하고 있는 투자상담관과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자신의 목표와 계획에 맞는 것을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적절한 한 투자신탁을 고른다면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음을 투자자들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실지 교포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투자(진정한 의미의 투자는 아님)인 Certificate of Deposit(C.D.) 한국말로는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C.D.는 3,6,9,12개월(1년), 1 1/2, 2, 3년 등 이러한 기간 동안 예금이 되어있으며 고정된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이 자율에 변화가 있더라도 상관없이 처음에 확정되는 이자율대로 만기일까지 이자를 받게 됩니다. 한테 이 C.D.란 진정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예금을 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금」이란 단어를 썼지만 (앞으로도 이해편의상 「예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금」 아니고 1년 만기 CD \$10,000의 경우 \$10,000을 지불하고 \$10,000짜리 증서(Certificate)를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 증서를 발행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C.D.란 은행이 자금이 필요하여 일반 대중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식으로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LA에 있는 A라는 은행이 1억불이라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10,0

00짜리 1년 만기 C.D. 만개(\$10,000X만개=1억불)를 발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A은행 혼자 힘으로 이 만개 C.D.를 팔기 힘들므로 여러군데에 판매를 의뢰하게 되는데 시애틀에 있는 B라는 은행도 여기에 끼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어떤 한국 분이 이 B은행에 가서 \$10,000 1년 만기 C.D.를 드실 경우 사실은 예금이 아니고 위에서 예를 든 LA의 A은행이 발행한 C.D.를 사신 것입니다.

둘째, 여러은행을 비교해보면 은행끼리도 똑같은 만기 C.D.이지만 조금씩 이자 차이가 있음을 경험해 보셨을 테고 아마도 그중 가장 높은 곳을 택하여 C.D.를 살 것입니다. 은행보다도 대형투자회사에서 훨씬 더 많이 이 C.D.를 취급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요? 그 이유는 발행은행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그만 local 은행보다도 대형투자회사에 맡겨서 팔면 훨씬 많이, 또 빨리 팔아주므로(미전역에 걸친 지점을 통하여) 필요한 자금조달이 빨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B은행에 100개 주고 팔아달라고 한다면 투자회사에는 1,000개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형투자회사는 도매로 취급하기 때문에 예금자에게(편의상 예금이란 단어를 씀)은 행보다 후하게 대략 1~1.5% 높은 이자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회사에서 취급하는 정기예금과 은행이 취급하는 정기예금을 다룬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었다면 이 글을 통하여 이제는 정확하게 이해하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셋째, 만기까지 갖고 있을 경우, 만기때 원금에다 그간의 이자를 받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 C.D.를 사나 똑같습니다. 한테, 만기전 해약의 경우는 큰 차이가 납니다. 1년까지 \$10,000 C.D.를 기렸는데 3개월 후

에 꼭 \$4,000이 필요로 하여 만기전 해약을 해야만 될 경우를 가정합니다. 먼저 은행의 경우, 은행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벌금(penalty)이 있습니다. 3개월치 이자를 몰수한다던가 받는이자보다 몇 % 높게 대부받는 형식을 취한다던가 기타 어떤식으로든지간에 벌금이 있으므로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들면 1년동안은 거의 못찾는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0만이 필요로한 것인데도 처음 예금액 \$10,000 전부가 해약이 되지요. 그런데 투자회사를 통하여 똑같은 C.D.를 들 경우, 우선 벌금이 전혀 없고 3개월이면 3개월 해약 그때까지 이자계산이 되어 그대로 받게됩니다. 또한 위의 예 경우 나머지 \$6,000은 그대로 남아있다는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10,000 C.D.가 \$1,000짜리 10개를 산것으로 취급이 되기때문에 필요한 금액 \$4,000(즉 4개)만 처분하고 나머지 금액 \$6,000(6개)는 그대로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가지 특이한것은 한개당 \$1,000인 값이 미국 금융시장에서 아주 조금씩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처분시 그때의 값으로 처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산 값 그대로(\$1,000) 혹은 \$999 또는 \$1,001로 처분이 된다는 것인데 이 얘기는 처분시 손해볼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손해보고 팔 경우라도 은행에서의 벌금보다는 훨씬 적음을 계산해 보시면 알수 있겠고 한편 오히려 이익을 볼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지 이익을 보고 만기전 해약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은행법대로 벌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넷째, 어디를 통해 C.D.를 사나 \$100,000까지 보험이 들어있습니다(FDIC). 이것은 발행은행이 발행시 보험을 든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통해 C.D.를 사나 상관없습니다.

한가지 유의하여야 할것은 \$100,000 보험이라는것은 모든 액수 즉 원금+이자를 다 의미하는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년만기 \$100,000짜리 C.D.의 경우 이자가 6.5%라면 1년후에 \$106,500을 받게되는데 만일이 C.D. 발행은행이 파산을 했다면 \$10,000만 갖게되고 이자 \$6,500은 보험이

안들어있으므로 받지못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것은 이자까지 계산하여 \$100,000이 넘지않는 한도에서 C.D.를 사는것인데 위의 예라면 \$93,000 예금하면 이자(\$6,045)까지 합쳐도 \$100,000이 채안되므로 100% 보험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우리 교포여러분들도 좀더 편리하고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많이 받을수 있는 곳을 택하실줄 아는 현명한 예금자가 이 글을 통하여 되시기 바랍니다.

인공위성으로 수신되는 본국의 당일뉴스, 광범위하게 취재된 서북미주 뉴스를 어느분이나 당일에 보실수 있습니다.



한국일보
426 Yale Ave N Seattle, WA 98109
구독·광고 ☎ 622-2229

가판대설치로
당일뉴스를 보실수있는
유일한신문
한국일보

가판대 설치장소

- 한일각 (다운타운)
- 영미정 (다운타운)
- 식당신라 (다운타운)
- 그랜드식품 (오로라)
- 오로라식품점 (오로라)

초보자를 위한 사진상식

문희동

사진은 카메라라는 통속에 필름을 넣고 햇빛(불빛)을 적절히 비추어서 필름을 태우는데 1차단계의 작업입니다. 2단계는 필름을 약물에 이용해서 현상하고 다음이 인화지에 인화 현상하여 3단계를 거쳐서 완성품이 되는것이 우리들의 상식인것입니다. 그런데 3단계에서 하나만이라도 실수하면 완전한 사진이 될수없기에 매우 중요하게 연관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지면을 통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할수없고 촬영관계 부분만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필름을 햇빛(불빛)에 적당히 태우기위해서 샷터속도, 조리개, 거리계등을 적절히 이용하여야만 되는것입니다. 대부분의 촬영자가 사진 실패원인은 이 부분의 조작미숙 사진상식 부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샷터(Sutter)와 조리개(Diaphragm)역할
1)샷터 : 빛의 양을 길게 짧게 조절장치로 보통카메라 뒷부분에 다이얼식으로 다음과같은 숫자로 적혀있습니다.(샷터 다이얼 위치는 카메라 형태에 따라 다르다)
TB 2 4 8 15 30 50 60 125 250 500 1000

샷터의 눈금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카메라로 야외에서 1/125(1/500)결정하며 실내에서는 1/60의 눈금에 위치함이 보통 기본입니다. 또 1/30 이하의 샷터 사용시에는 삼각대를 이용하여 카메라의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2)조리개 : 조리개는 렌즈의 구경(구멍)을 크게 열거나 좁게 열어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우리의 눈과같은 위치) 예를 들면 방안에 전기불을 키고 문을 적게열면 빛이 적게 밖으로 비치고 문을 많이 열면 빛의 양이 많이 밖으로 비치는 경우와 같은것입니다. 렌즈 뒷부

분에 적혀있는 숫치는 렌즈의 밝기와 같은 작용으로 수치 한단계 변경시키는데 따라 2배의 노출량이 좌우되는것입니다.

1,2 1,4 2 2,8 4 5,6 8 11 16 22 32
← 심도가 낮다(밝다) → 심도가 깊다
기본노출 보통의 햇빛에서 F 11
바닷가 F 16
흐린날씨 F 5,6(4)

조리개 작동
어두운곳에서는 열어준다
밝은곳에서 닫아준다

샷터조리개의 관계에서 샷터는 1단계 좁혀주면 광량 1/2 감소되고 1단계 높여(넓게)주면 2배씩 증가되는 관계가 있습니다.(같은 노출량 8/125=2,8/1,000=16/30)

그러므로 풍경, 인물, 정물등의 피사체에 따라 샷터속도와 조리개는 각각 그때그때 현황에 따라서 달리 선정(조정)하여야합니다. 일반 초보자들이 제일 어려워하고 혼돈하기쉬운 장치들입니다.

●카메라 거리계(Finder)

적고자 하는 피사체의 거리에 따라 카메라 거리계를 움직이어서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초점이 맞지 않으면 흐린사진이 되거나 아주 나쁜사진이 됩니다. 근래는 전자식 자동 거리계 카메라가 등장해서 편리한 카메라도 있습니다. 거리계는 상하 합치식과 분합식 거리계로 나뉘나 이 모두가 동일하게 합치면 됩니다.

경기 승리 기쁨

구자경목사 <시애틀 중앙장로교회>

운동경기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는 굉장합니다. 88년도 조국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올림픽경기는 세계인의 관심속에서 진행되는것을 보면서 이일로 인하여 우리 민족전체가 이일에 정치, 경제, 교육, 생활면까지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운동경기는 어떤 정치적 중대사도, 어떤 명작이라도, 어떤 영화도 운동경기만큼 일반인의 관심을 모으지 못합니다. 세계 권투의 챔피언을 뺏을때(알리 대 스팅크스)나 우리나라 대표선수가 출전하여 국제경기의 중계가 있을때 누구나 짐작할수 있습니다. 경기의 결과에 대한 반응도 뜨겁고 경기과정에서 보여지는 기술에 관심을 쏟는 사람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한편에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여 심리적인 면에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면은 나의편, 나의 모교, 나의 지방, 나의 직장, 나의 조국, 나의 겨레, 나의 기대 등등 이유로 어느편에 가담하게 되고 그래서 경기진행에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쉬워도 하며 실망도 하고, 사기충천되기도 합니다.

홍분속에서 경기의 시종을 따라가다가 승리에 참여합니다. 어떤사람은 신문을 읽고 그 승리를 기뻐하고 어떤사람은 텔레비전 중계를 보고 기뻐합니다. 또 어떤자는 직접 현장에 입장해서 육안으로 경기를 체험하며 승리를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통하여 승리를 알았던지간에 승리편의 사람들은 다 기뻐합니다.

우리가 싸워 승리해야 할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원수를 육신의 소욕, 공중의 권세잡은자(사탄) 그리고 죄악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를 망치고 무의식여으로 만들며 정신을 타살하고 육체의 여승리를 부르짖는 자아는 언제나 울타여리박이 아닌 자기속에 아방궁을 차리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같은 전투가 계속되는데 무슨무기로 승리할까요? 첫째, 말씀으로 물리칩시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도, 제자의 만류도, 폭력배도, 사망도 이기셨습니다.

둘째, 사랑으로 악을 물리칩시다. 악을 악으로 갚지말라고 성경전체는 불의와 죄악에 대한 사랑의 개선가로 가득차고 긍정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은 사랑이상의 사랑입니다.

셋째, 우리는 승리는 현재 미래의 의미가 아니라 과거의 의미가 수반됩니다. 내가 승리하자는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 전과를 내것으로 획득하는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승리는 나의 신념에서 오는것이 아니라 그분의 승리를 내것으로 삼는데 있습니다. 영적전투에는 차선이 없고 신앙의 갑주에는 등을 가리우는 배후 잡옷이 없기에 신자는 등을 돌릴수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전진하는 길이 사는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이러한 승리는 기쁨의 정도가 다릅니다. 제일 기쁜것은 내가 실전에 참여하여 승리한것이 최고의 기쁨과 일착이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종과 받은 달란트로 장사하는데 땀을 흘린 충성된 종입니다.(마 25:14~30) 충성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의 말년에 이와같은 기쁨의 충만이 있었습니다. (딤후 4:7~8)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하고 자랄것입니다. 여기에는 승리의 보장이 있으니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십시오. 하나님앞에 경주자가 되어 직접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댓가는 우리가 만족을 누릴것입니다. 교민여러분의 매사에 기쁨과 승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3 S : Soup, Soap, Salvation

박혁락 사관 <타코마 미국 구세군교회 부목사>

1865년 영국에서 William Booth 목사가 창설한 구세군은(The Salvation Army) 개신교의 한 교단으로 억울한 사람, 억눌린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Soup(음식)으로 육의 양식을 채우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여 주면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

구세군 교단을 특히 사회사업 신학의 선구자로서 하나님의 군대조직을 갖고 영혼구원을 위해 "Heart to God-Hand to Man" 정신에 심혈을 쏟고 있다. 1987년은 U N 에서 「집없는 사람들의 해」로 정한것도 구세군 정신에서 나온것이며 현재 87개 국가에 구세군이 있고 단일선교 교단으로서는 캐토릭다음으로 제일 큰 사랑의 단체이며 하나님의 군대이어서 많은 서양국가에서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임이 대단한 자선단체이자 교회조직이다.

한국사람에게는 크리스마스 시기에 자선남비운동으로 알려져있기도 하다. 교회조직에 있어서 구세군 용어가 있는데 교회를 영문이라고 부르며 신학교를 사관학교, 목사를 사관, 교회제직을 하사관, 장로를 정교, 평신도를 병사, 세례식을 입대식, 성만찬을 애찬식으로 부르고 사관에는 계급이 있어서 Lt.(5년), Captain(15년), Major(80-90% 은퇴), Lt. Col.(행정직), Col.(서기장관직), Comissioner(사령관), Chief of Staf(참모총장), General(대장)이 있다.

사관학교 입학은 결혼한 부부는 같이 해야하고, 졸업후에는 부인도 사관으로 임관, 임명을 받게되어 목사로서 동등한 자격을 부여받고 있다. 특히 세계본부는 영국 런던에 있고 대장은 오스트랄리아 사령관을 역임한 이봐 바오루스는 86년 5월 세계 최고사령관회의에서 피선되어 여자로서 세계구세군에 최고의 직위를 갖고있다. 미국 서군구 사관학교 교장은 한국사관이-영국사관학교 출신인 장희동 정령보가 있으며, 집안사람과 나는 한국사람으로 처음 미국에서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스포케인(워싱턴주)에서 미국 구세군교회에서 지난 2년간 80명의 직원과 같이 좋은 사회사업과 교회경험을 하였다.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사회사업은 Food-Bank, 알콜중독치료소(A.R.C.), Family Crisis Lodge, Youth Community Center, Summer Camp, Day Care, Sr. Neufrition Program, Corps Program, Thrift Store 등을 운영하고 있다. Heart to God-Hand to Man!

“저는 이번에 Puget Sound 에 살고계시는 한국교민을 위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할수 있는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글월로서 먼저 인사를 대신합니다. 인간의 영과 육의 필요한 soup, Soap, Salvation은 구세군의 핵심정신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드리면서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가운데서, 할렐루야!” Lt. Justin Park

사무실 : 1501-6th Ave P.O.Box 1254

Tacoma, WA 98401

Tel (206)572-8452

자택 : (206)759-1161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재무보고

1987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I. 일반기금

수입부

전년이월금	\$ 2,900.00
한인회비	2,595.00
찬조금	11,746.08
행사수입 및 특별찬조금	
○한국의 밤	13,979.00
○SAT 강좌	3,408.48
○청소년 캠프(하기)	2,805.00
○민속축전 음식판매	1,560.00
광고수입	2,255.00
차기회장단 공탁금	6,500.00
이자수입	88.43
총수입	\$47,836.99

지출부

경상비	
○사무실 임대료	\$ 2,500.00
○사무국장 사례비	4,770.00
○전화사용료	706.64
○사무용품비	723.46
○은행수수료	81.05
○사서함 사용료	53.00
○우표구입	132.00
○경조화환 및 선물비	775.61
○사진대금	792.89
○신문구독비	125.83
○비품구입비(전화기·한영 타자기)	848.58
○회의비용 및 다과비	136.12
○상장 및 감사패	123.10
○1986년도 재무감사비용	300.00
경상비 소계	\$13,968.28
한인회보 발간비	
○인쇄 및 식자비	5,168.89
○우송료	745.07
한인회보 발간비 소계	\$5,913.96
체육대회 경비	
○유니폼 구입	418.00

○체육행사지원비

•한인회장배 축구대회	1,000.00
•아시안청소년 체육대회	300.00
•전미체전 지원금	500.00
•체전한국출전 지원	500.00
○상패 및 상품	210.40
○운동장 사용료	106.00
(뱅크버-시애틀 체육대회)	
○기타비용	39.75
체육대회경비 소계	\$3,074.15
행사 및 활동비	
○김동길 박사 초청강연	100.00
○민속축제	580.00
○교역자 간담회	116.41
○삼일절 기념식	60.00
○SAT 강좌	990.00
○청소년 하기캠프	6,168.64
○한국의 밤	9,920.61
○시애틀 시도서관 한국도서증정	1,250.00
○불우이웃돕기	300.00
○사위,며느리의 밤 보조비	149.26
○아리랑의 밤 장소예약금	200.00
○Street Peoole 구제	1,000.00
○기관보조금	550.00
행사 및 활동비 소계	\$21,384.92

총지출액(10월31일까지)	\$44,341.31
은행잔액금(10월31일 현재)	\$3,495.68

II. 한인회관 구입기금 현황

이월금(전년도)	\$37,649.61
1987년도 추가모금	2,094.80
이자소득(7월24일까지)	1,589.66
한인회관 기금잔액(10월31일 현재)	\$41,334.0

행사계획표

- 10월 정기임원회
입후보 등록마감
총회공고
무료진료
- 11월 정기임원회
불우이웃돕기(식사대접)
정기총회(11월14일 토요일)
아리랑의 밤 준비계획
무료진료
양로원 방문
아리랑의 밤(11월28일)
- 12월 정기임원회(12월12일)
회보발간

무료 생활영어강좌

본 상담소 주최로 무료 생활영어강좌를 아래와 같이 열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많은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 1987년 11월7일부터 매주토요일
오전9시~12시
장 소 : 한인생활상담소
Woodland Park United Methodist Church
302 N 78th St
(78가와 그린우드에 위치)
강 사 : 민난희
연락처 : 784-5691

한인생활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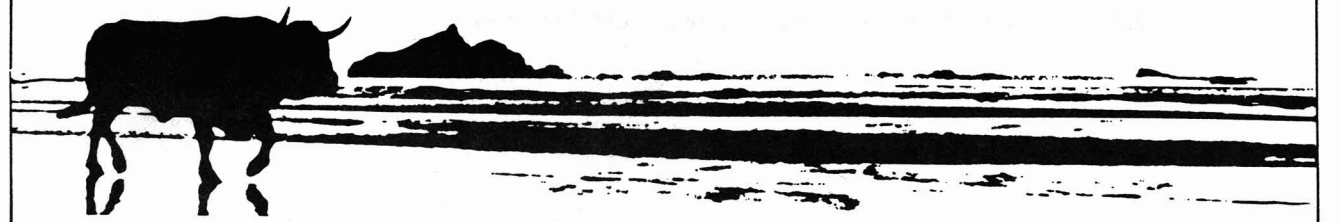
In Federal Way your world should know no boundaries.

Federal Way is our kind of town. Looking ahead. And growing.
Let us show you what investment leadership can mean to your future. We'll help you put your money to work. No one offers you the broad range of products and services that Merrill Lynch does. Everything from stocks and bonds to IRAs and Cash Management Accounts.
In addition, we offer you a staff of experienced and highly trained Financial Consultants who can help you plan and develop your own personal investment program.
Why not give us a call—or better yet, stop in and say hello.

31919 First Ave. South
Suite 200
Federal Way, WA 98003
206-941-9490



© Copyright 1987 Merrill Lynch, Pierce, Fenner & Smith Inc. Member SIPC



ABOUT FRANCHISING**FOOD: RESTAURANTS**

A & W RESTAURANTS, INC.**(313) 271-9300**

One Parklane Blvd., Suite 500 E., Dearborn, MI 48126
full member

TYPE OF BUSINESS: Upscale fast food and upscale ice cream restaurants.

HISTORY: 650 franchised outlets, 8 company-owned; in business 63 years.

CASH INVESTMENT: Start-up, \$200,000; total investment, \$600,000. No financial assistance available.

QUALIFICATIONS: Minimum 3-5 years' fast food or restaurant experience, satisfactory financial rating. Franchisee must operate restaurant or have sufficient management support, progressive attitude, good health.

CONTACT: LaMont Burningham, Vice President of Franchising
Jeffrey P. Novak, Manager of Franchise Sales.

ARBY'S, INC.**(In Georgia, Alaska & Hawaii) (404) 262-2729**
(All other states) 1-800-554-1388

Ten Piedmont Center, Suite 700.
3495 Piedmont Rd., NE, Atlanta, GA 30305
full member

TYPE OF BUSINESS: Fast food restaurants specializing in roast beef.

HISTORY: 1,275 franchised outlets. 169 company-owned; in business 20 years.

CASH INVESTMENT: \$100,000+. No financing assistance available. However, Arby's will guide new franchisees in obtaining financing.

CONTACT: Russell S. Johnson, Vice President-Franchising

BURGER KING CORPORATION**(305) 596-7011**

P.O. Box 520783, General Mail Facility, Miami, FL 33152
full member

TYPE OF BUSINESS: Fast food restaurants.

HISTORY: 2,908 franchised outlets, 494 company-owned; in business 29 years.

CASH INVESTMENT: No financing assistance available. However, we will provide our franchisees with possible financing courses that can provide their needed financing.

QUALIFICATIONS: A person whose personal qualifications clearly indicate a high degree of dedication, drive, business acumen, and enthusiastic leadership. Also, a willingness to meet our requirement of strong, personal, full-time involvement in the restaurant.

CONTACT: Vice President, Franchising Department, Ext. 7730

DENNY'S, INC.**(714) 739-8100**

16700 Valley View Avenue, La Mirada, CA 90637
full member

TYPE OF BUSINESS: Full-service restaurants.

HISTORY: 34 franchised outlets, 895 company-owned; in business since 1951.

CONTACT: Bruce Evans, Property Development
Frank Barreras, Director of Franchise

DOMINO'S PIZZA, INC.**(313) 668-4000**

1968 Green Rd., P.O. Box 997, Ann Arbor, MI 48106
full member

TYPE OF BUSINESS: Pizza delivery and carry out.

HISTORY: 859 franchised outlets, 376 corporate-owned outlets; in business 24 years.

CASH INVESTMENT: \$55,700 to \$131,500. Domino's Pizza, Inc. provides no direct financing, but will recommend alternate sources of financing and equipment leasing.

QUALIFICATIONS: Domino's Pizza, Inc. is now offering franchises only to qualified internal personnel, particularly to store managers and supervisors who have served a minimum of 12 months (to qualify for a single unit) and 18 months (to qualify for a multiple unit area).

CONTACT: Ext. 588

FOOD: RESTAURANTS

FLAKEY JAKE'S, INC.**(206) 774-6622**

6710 220th S.W., Mountlake Terrace, WA 98043
associate member

TYPE OF BUSINESS: Gourmet hamburger restaurants.

HISTORY: 5 company-owned outlets; in business 1 year.

CASH INVESTMENT: \$250,000. Financing available for franchisee, first unit only.

QUALIFICATIONS: Restaurant experience desired. Proven business experience is essential.

CONTACT: John Zechman, Vice President—Marketing/Franchise Sales
Kevin P. Taylor, Executive Counsel

GODFATHER'S PIZZA**(714) 754-1703**

(Division of Diversifoods, Inc.)
151 Kalmus Drive, Building D, Costa Mesa, CA 92626
full member

TYPE OF BUSINESS: Restaurant business—Godfather's Pizza Restaurants.
HISTORY: 659 franchised outlets, 228 company-owned; in business 11 years.
CASH INVESTMENT: \$200,000 to \$275,000.
QUALIFICATIONS: Financial capability with demonstrated management expertise.
CONTACT: Patrick Meegan, Vice President—Development of Godfather's Pizza Division

JACK IN THE BOX**(619) 571-2200**

(Foodmaker, Inc.)
P.O. Box 783, San Diego, CA 92112
full member

TYPE OF BUSINESS: Fast food restaurants.
HISTORY: 48 franchised outlets as of April 1984, 732 company-owned; in business 33 years. Multiple restaurant franchises offered in selected areas in Washington, Idaho, and Texas. Other areas in Northwest and Southwest may be available in the future.
CASH INVESTMENT: Strong net worth in order to develop a complete market area. No direct financing available.
QUALIFICATIONS: Success-oriented, expansion-minded, financially responsible owner/operator with strong business background who can commit total involvement.
CONTACT: Helen M. Trent, Director—Franchise Development

MCDONALD'S CORPORATION**(312) 887-3200**

1 McDonald's Plaza, Oak Brook, IL 60521
full member

TYPE OF BUSINESS: Fast food restaurants.
HISTORY: 7,776 restaurants in all 50 states,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31 foreign countries. Approximately 75 percent of all domestic restaurants are franchised. A limited number of opportunities are available.
CASH INVESTMENT: Approximately \$325,000 to \$350,000, 40% must be generated from personal funds without resource to financing of any kind.
QUALIFICATIONS: Geographic flexibility is required.
CONTACT: Licensing Department

PIZZA HUT, INC.**(316) 681-9805**

P.O. Box 428, Wichita, KS 67201
full member

TYPE OF BUSINESS: Pizza restaurant featuring full service, Pan Pizza, Thin 'n' Crispy, and Personal Pan Pizza. Pizza Hut also offers pasta, salad bar, and sandwiches.
HISTORY: 1,994 franchise restaurants, 1,845 company-owned; in business since 1958.
CASH INVESTMENT: \$550,000 to \$600,000. No financing assistance available.
QUALIFICATIONS: Restaurant experience is an asset.
CONTACT: Gary Swink, Director-Franchise Administration

SKIPPER'S**(206) 454-3456**

14450 NE 29th Place, Suite 200, Bellevue, WA 98007
full member

TYPE OF BUSINESS: Quick service seafood restaurants.
HISTORY: 20 franchised outlets, 135 company-owned; in business 14 years.
CASH INVESTMENT: \$80,000 to \$110,000. No financial assistance available.
QUALIFICATIONS: Previous business (management) experience required, \$250,000 net worth required. Prior restaurant experience desirable.
CONTACT: Sam Petersen, Director, Franchise
Chris LeSourd, Executive Vice President

TACO BELL**(714) 850-6500**

16808 Armstrong Ave., Irvine, CA 92714
full member

TYPE OF BUSINESS: Fast service Mexican food restaurant.
CONTACT: Zane Leshner, Vice President-Franchising

WENDY'S INTERNATIONAL, INC.

(614) 764-3100

4288 West Dublin Granville Rd., P.O. Box 256, Dublin, OH 43017
full member

TYPE OF BUSINESS: Wendy's Old Fashioned Hamburgers restaurants.

HISTORY: 1,751 franchised outlets, 922 company-owned at December 31, 1983; in business 14 years. Wendy's International, Inc. is accepting applications for a limited number of single unit franchise opportunities.

CASH INVESTMENT: \$150,000 to \$650,000 total investment. No financing assistance available.

QUALIFICATIONS: Successful business track record, commitment as owner/operator.

CONTACT: Franchise Sales and Development Department

캔디/스낵, 어떤 상품이 잘 팔리나?

- 금년 5월에 판매된 캔디및 스낵류 인기 품목 60가지의 순위 -

순위	상품명및 규격	평균 소매가격	순위	상품명및 규격	평균 소매가격
1	Doritos Corn Chips, nacho, 2.5 ounce	\$0.59	31	Hostess Honey Bun, iced, 3.75 ounce	0.50
2	Chee-tos Fried, 2 1/2 ounce	0.59	32	Tostitos Corn Chips, 6.5 ounce	1.29
3	Snickers Bar, king-size	0.79	33	Dolly Madison Doughnuts, chocolate	0.65
4	Snickers Bar, 2 ounce	0.49	34	Ruffles Potato Chips, regular, 2 ounce	0.59
5	Doritos Corn Chips, Cool Ranch, 2.5 ounce	0.59	35	Doritos Corn Chips, Cool Ranch, 7.5 ounce	1.59
6	Doritos Corn Chips, nacho, 7.5 ounce	1.59	36	Ruffles Potato Chips, Cajun, 6.5 ounce	1.39
7	Mrs. Baird's Doughnuts	0.59	37	Mrs. Baird's Honey Buns, 3 ounce	0.59
8	Lay's Potato Chips, regular, 7 ounce	1.39	38	Frito-Lay Cheese Crackers, 1 ounce	0.49
9	Lay's Potato Chips, regular, 2 ounce	0.59	39	Almond Joy, 1.76 ounce	0.49
10	Candy, other	0.15	40	Hostess Pudding Pies	0.65
11	Ruffles Potato Chips, regular, 8 ounce	1.39	41	Hostess Pie, apple	0.65
12	M&M's Peanut, king-size	0.79	42	M&M's Peanut	0.49
13	Candy, other	0.05	43	Dolly Madison Zingers	0.65
14	Wrigley's Gum, Doublemint, 7-stick	0.49	44	Chee-tos Fried, 8 ounce	1.59
15	Wrigley's Gum, Doublemint, Plen-T-Pak	0.85	45	Hershey's Milk Chocolate With Almonds, Big Block	0.79
16	Hostess Cup Cakes, chocolate	0.65	46	M&M's Plain	0.49
17	Fritos Corn Chips, Chili Cheese, 2.5 ounce	0.59	47	Doritos Corn Chips, regular, 7.5 ounce	1.59
18	Kit Kat bar, 1.625 ounce	0.49	48	Fritos Corn Chips, king-size, 10.5 ounce	1.49
19	Reese's Peanut Butter Cups, 1.8 ounce	0.49	49	Skittles	0.49
20	Hostess Twinkies, yellow, 3 ounce	0.50	50	Funyuns, 2 ounce	0.59
21	Hostess Ding Dongs	0.65	51	Groff's Potato Chips, jalapeno, 7 ounce	\$1.39
22	Candy, other	0.20	52	Milky Way Bar	0.49
23	Fritos Corn Chips, regular, 3 ounce	0.59	53	Hostess Pudding Pie, chocolate	0.65
24	Hostess Choco Bliss, 2-pack	0.65	54	Frito-Lay Dip, bean, 9 ounce	1.39
25	Candy, other	0.10	55	Dolly Madison Doughnuts, crunchy	0.65
26	Candy, novelty	0.49	56	Dentyne Gum, cinnamon, Bonus Package	0.85
27	Butterfinger large bar, 4 ounce	0.89	57	Baken-ets Pork Skins, BBQ	1.49
28	M&M's Plain, king-size	0.79	58	Lay's Potato Chips, sour cream-onion, 6.5 ounce	1.39
29	Wrigley's Big Red Gum, Plen-T-Pak	0.85	59	Golden Almond Solitaires, 3.2 ounce	1.39
30	Mrs. Baird's Cinnamon Rolls, cluster	1.25	60	Mrs. Baird's Cinnamon Rolls, snack	0.59

IN APPRE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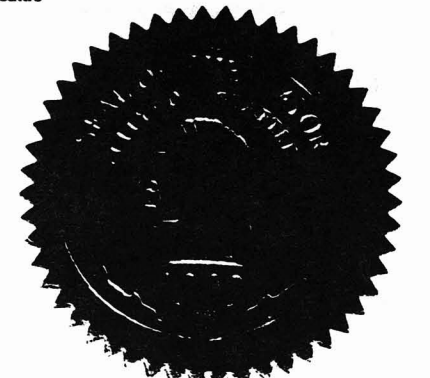
Seattle WA Korean Association

is hereby honored
this 19th Day of September 1987,
on the occasion of the
Bicentennial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Our constitutional heritage has led to a nation rich in cultural, political, religious and ideological differences. We gratefully acknowledge that this tradition is preserved and protected by your good work and your participation as a member of the Ethnic Heritage Council of the Pacific Northwest.

Jeri-Marie Bennett
President
Ethnic Heritage Council

Charles Royer
Mayor of Seatt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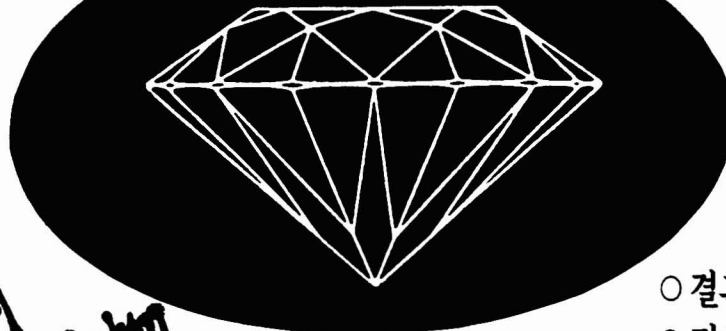


ETHNIC HERITAGE COUNCIL

비교해보시면 압니다

전국에서 가장싼 도매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대특매



부처님날의
가장 값진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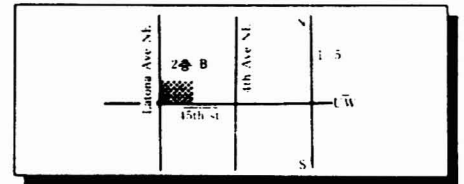
존경하는 부모님께
아끼는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PAYMENT LAYAWAY

(206) 547-3210

- 결혼보석전문
- 각종셋팅 - 개성적인 디자인
- 품질보증서
- GIA 공인감정서



GR ENTERPRISES INC.

302 NE 45TH ST. SUITE B SEATTLE, WA 98105



시애틀 워싱턴주 한인회
SEATTLE • WASH STATE
KOREAN ASSOCIATION
GREENWOOD P.O. BOX 30065
SEATTLE, WA 98103-0065

Non-Profit Org.
U. 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